



강북구의회
GANGBUK-GU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2월 09일
(목요일)

시사프리신문 3면

전국매일 5면

강북구청 진행 사업, 관내업체와 구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라!!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 행정보건의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특히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구민



강북구의회 이영심 의원

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

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강북구청 측은 수시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유영일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 내년예산 심의



김도연 의원

“구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배정”



이종순 의원

“소외계층 없이
적정하게 반영”

서울 강북구의회 제147회 2차 정례회기간 중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친 소감을 들어왔다.

김도연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구살림이지만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복지·교육 부분 사업에 예산 비중을 늘리는데 주력했다”고 심의결과를 밝혔다.

조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수유3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예산을 지적하며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의 장점을 살려 리모델링,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민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사이버스쿨과 관련해서는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홍보담당관과 교육지원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를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 및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 적정반영되는지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에 임했습니다”

예산 심의기간 이종순 의원은 지역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일간신문 지원비용이 많이 낮음을 지적하고 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반장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특히 보건소 신규 사업인 층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어금니 교합면의 흡을 배워주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각 성별 또는 개인별 발달이 다른데 사업대상을 취합통지서 수령 아동에 한정됨을 지적했다.

또한 예절교육과 관련, 강북문화원의 민간위탁 운영이 예산 대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전동 주민센터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확대 및 벤치마킹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수도권일보 4면

이종순 의원 “아동 충치 치료 지원 확대”

김도연 의원 “무상급식 지원시 대책 강구”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이종순·김도연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소감을 밝혔다.

이종순 의원은 “지역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일간신문 지원 비용이 많이 낮음을 지적하고 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반장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소 신규사업인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어금니 교합면의 흡을 배워주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각 성별 또는 개인



이종순 의원

김도연 의원

별발달이 다른데 사업대상을 취합통지서 수령아동으로 한정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절교육과 관련 강북문화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예산 대비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전동 주민센터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확대 및 벤치마킹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도연 의원은 “노후화된 수

유3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예산을 지적하며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의 장점을 살려 리모델링,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민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스쿨과 관련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상황과 관련 보고를 듣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 또는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승원기자 wsj@sudokwon.com

강북, 2011년도 예산 심의 결과



“복지·교육 부분 예산 비중 늘리는데 주력”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사진)은 제14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 “경기 침체로 어려운 구 실정이지만,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복지과 교육부분 사업 부분에 예산 비중을 늘리는데 주력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혀왔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인 김도연 의원은 노후화된 수유3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예산을 지적하며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의 장점을 살려 리모델링, 신

축또는 증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민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사이버 스쿨과 관련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사업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홍보담당관과 교육지원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부서를 일원화해사업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상황과 관련 보고를 듣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 또는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해 강북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소외계층 없는 적극적인 예산 반영에 초점”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이종순 의원(사진)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행정보건의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마치며 소감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 및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 적정히 반영되는지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이종순 의원은 지역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일간신문 지원 비율이 많이 낮음을 지적하고 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반장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특히, 보건소 신규사업인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어금니 교합면의 흠을 메워주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하여는 아동의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각 성별 또는 개인별발달이 다른데 사업대상을 취학통지서 수령아동에 한정됨을 지적했다.

또한, 예절교육과 관련 강북문화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예산 대비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천동 주민센터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확대 및 벤치마킹하여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수 기자

pns@seoulilbo.net